

# 妄想

망상(妄想)은 자유라는 농담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가끔 조금씩 망상에 빠질 때가 있다. 엄격히 말해 망상증은 정신병의 기본 증상이다. 하지만 사람은 제 절란 맛에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현실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사고의 방향으로 망상 비슷한 사고를 좀 가져보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金重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정신과)

망상이란 근거없는(혹은 잘못된) 믿음이라 정의한다. 정신과적 장애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때 정신병, 신경증, 성격 장애로 나누게 되는데 망상은 정신병의 기본 증상이다. 성격장애나 신경증을 앓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망상을 나타낼 때가 있으나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정신병의 대표적인 것을 정신분열증이라 볼 때 원칙적으로 모든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망상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이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다

## 어느 40代 여인의 妄想

나에게는 심심찮게 애인이 많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쪽보다는 그 쪽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정신과 교과서에서는 전이(transference)라고 하여 원래의 대상은 따로 있는데 치료과정에서 치료자에게 그 감정이 옮겨왔다는 뜻이다. 그 전이가 미움일 때는 살인도 저지룰 수 있다. 그런데 대개 정신병환자들의 사랑 밑에는 미움도 함께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우리는 양면감정(ambivalence)이라고 부른다.

잠깐 나를 그토록 짝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그는 지금은 사십대 중반쯤 되는 나이의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남편과는 이혼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 처음 나에게 진료차 다녀간 것은 아마 약 15년

전쯤 된다. 다른 개인 병원에서 정신과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심리학적 검사를 시행한 후에 그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여 그 후에도 두세번 다녀갔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심리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찾아오곤 하여 가족을 불렀다. 가족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고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한동안 잠잠하여 이제 잊어버리고 있던 차에 약 2년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는 잘 있으며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단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그러다가 약 1년 전에 하루는 불쑥 내 연구실로 찾아왔다. 자기가 예쁘지 않느냐, 각선미가 얼마나 좋으냐, 지금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등 혼자서 한참 떠들다가 나를 만나보았으니 집에 가야 한다며 떠났다.

그 이후로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불쑥 불쑥 나타나서는 혼자서 떠들다가 간다. 이렇게 하면 진료에 방해가 되니 정식으로 진료권을 떼어가지고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라 해도 자기는 그런 것이 모두 필요없단다. 자기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내가 바쁘든가, 할 일이 많든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하는 논리이다.

그는 나에게 반말을 쓴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쓰는 말투와 같다. 반 말을 쓰지 말고 존대말로 말하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그의 생각 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애인이며 남편이다. 그러다가 한참동안 소식이 없었다. 최근에 다시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이 약을 먹고 있는 목소리와 비슷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찾아올 것이다.

이 환자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좋은 것 혹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이며, 그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거나 타인이 그것을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는 가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며 그 사람들을 욕하는 전화를 나에게 건다. 때로는 나더러 왜 그렇게 시켰느냐며 항의한다.

###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대개는 행복해지겠지만 이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망상은 자유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에는 그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망상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피해망상이다.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을 괴롭히려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그가 먹을 음식에 독을 넣는다고 의심하며,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며 흥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자기가 군에 입대할 때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심리학전공 장교와 정신과 군의관을 제대한 후에 찾아가 총으로 쏘죽인 사건도 있었다. 그는 그 두 사람이 고의로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오래 전에 보았던 어느 정신과 환

자는 미국에서 아주 우수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CIA가 자기를 감시하며 한국에서는 AFKN을 통하여 자기를 감시하는 메시지를 음악을 통하여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물도 아주 미남이었고 나이도 젊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다음으로 흔한 것은 과대망상인데 이것은 대개 피해망상과 안팎을 이루고 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고의로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정신과 병동에 하느님의 아들이 두명씩이나 있었던 때가 있으며, 한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가 두명이나 있었던 때도 있었다. 이런 환자들은 항상 너털웃음을 웃으며 어깨를 쭉 펴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누가 자기 주장을 반대하거나 기분을 거슬리면 금방 공격적인 행동을 벌인다. 얼마나 세상이 괴로웠으면 그렇게 모든 괴로움을 부인(denial)하고 반대극단으로 치달았을까!

이밖에도 정신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고장애(thought disorder)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들 사고장애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 세상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비논리적이라고 혹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본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논리가 진짜로 옳은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 증거이다. 객관적인 증거란 무엇인가? 반복시행해 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제3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객관적이라 본다.

### 사람은 제 잘난 맛에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는 일이다. 일부러 논쟁을 유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망상환자와 논쟁하는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다. 서로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치료적인 효과는 더욱 얻기 어렵게 된다. 정신과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치료자와 환자사이의 치료적 관계인데,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는 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일단 치료적 관계가 형성되면 치료의 약 절반은 이루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치료적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는 함께 손잡고 환자가 갖고 있는 망상의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찾아나서는 일이 남아있다. 증거가 없거나 확실치 않으면 환자의 생각이 객관성이 없다거나 타당하지 않음을 인정케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체면을 유지하면서 과오를 인정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길고도 매우 조심스런 과정이다.

망상은 자유라는 농담이 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가끔 조금씩 망상적인 사고에 일시적으로 빠질 때가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면 세상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의 장점은 한가지도 없는 것 같다. 사람은 모두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사고의 방향으로 망상 비슷한 사고를 좀 가져보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㉟